

# 코로나 극복 여부가 대선 향배 가름...호남의 선택 주목

신축년(辛丑年)인 2021년이 시작되면서 여야의 대권 시계는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여야 잠룡들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을 기점으로 역산하며 치열한 정치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개혁세력의 심장 역할을 해왔던 호남 민심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잇는 '4기 개혁 정권' 재창출에 방점을 찍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이끄는 진원지가 되어 차기 대선을 주도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호남은 현 정권의 심장부라는 점에서 호남 민심의 선택은 더욱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차기 대선은 코로나 19 사태가 만들어 낸 각종 변수들이 산재해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광주일보는 1년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의 변수와 구도를 조명해본다.

여권, 이낙연·이재명 지지율 정체...정세균·이광재 등 '제3 후보' 변수  
야권, 유력한 대선주자 부상하지 않아 윤석열 거취가 최대 변수

◇코로나19 사태= 코로나19는 이제 차기 대선의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극복되느냐가 차기 대선의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정권의 분석이다. 일단 상황은 여권에 유리하지 않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1-3월만 해도 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국론 결집과 문재인 정부의 효과적인 '케이(K)-방역' 등으로 여권이 4·15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다. 하지만 최근 3차 대우행의 양상은 좀 다르다. 전문가들의 잇단 겨울 대우행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 발 늦은 '사 회적 거리두기'와 중환자 병상 부족, 의료인력 부족 사태 등 방역 정책 실패 사례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3차 대우행의 장기화 우려와 함께 케이-방역의 신화가 깨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백신 디바이드(Vaccine Divide·접종 격차)도 여권엔 시한폭탄이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것인지는 미지수다. 반면, 야권은 "백신을 충분히, 적절한 시기에 확보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일본이나 중국 등보다 국내 백신 접종이 늦을 경우,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겹쳐 민심의 반발은 커질 수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내년 상반기 이전에 분명하게 잡히지 않을 경우, 여권의 정권 재창출 전선에는 상당한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포함된 4·7 재보선은 정치적 상징성을 감안하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다. 차기 대선의 흐름을 좌우하는 전초전 성격의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을 캐치 프레이즈로 내세울 방침이다.

일단 민주당 소속이었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승주분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는 선거라는 점에서 여당엔 부담이 크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 표류, 코로나 3차 대우행, 윤석열 논란 등 여당에 불리한 이슈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누적된 민생의 피로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이긴다고 해도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장과 제2의 도시 부산시장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정치적 타격은 가능하기 힘들다. 당장,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대표는 4·7 재보선 이전인 3월에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지만 전직 대표로서의 '책임론'이 거

론되면서 여권의 대선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

야권은 서울·부산시장 모두 승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당장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가 난제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비박 민심만 믿고 마냥 낙관하기에는 녹록지 않다는 평가다. 여기에 야권이 '새로운 보수'라는 정체성을 아직 세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 19 재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조기에 시작된다면 판은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재난지원금의 효율적 지원 등이 가시화된다면 해불만 한 선거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경선 구도=일단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양강 구도가 형성된 상황이지만 변동 가능성은 여전하다. 두 사람 모두 20% 안팎의 박스권 지지율에 갇혀있는 등 확장의 한계를 노획하면서 여권의 속내도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판망세가 이어지며 '제3후보론'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막판 바람이 분다면 경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연초 개각과 맞물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에 복귀할 경우, 경선 지형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정 총리는 전복이 고항이라는 점에서 전남이 고향인 이낙연 대표와 호남이라는 정치적 기반이 겹치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최근 당내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크게 늘리는 등 대권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K-방역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그의 거취는 결국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변수다. 대법 판결이 3월 이전에 이뤄지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다면 민주당 경선 구도는 지각 변동이 올 수 있다. 일각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 3후보의 측근 지원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여권의 중추인 80년대 운동권 출신인 '86그룹'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원조 친노 이광재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최근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여기에 유시민 전 장관도 여전히 차기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은 다지구도를 기반으로 특유의 역동적 경선을 통해 정권 재창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제3시대론=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제1야당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를 체제를 운영하며 위기 극복과 함께 정권교체를 다짐하고 있지만 야



지난 2016년 11월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쟁쟁대회' 모습. 당시 진행된 촛불행진은 이듬해인 2017년 대선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됐다.

직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여권에 대한 할 만한 유력 대선 주자가 부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당내 잠룡군 가운데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상태다. 나름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복당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는 야권의

딜레마이자 대권 레이스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윤 총장은 아직 정계진출 여부조차 미지수지만,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전체를 압도하는 위력을 보이고 있다. 차기 대선에서 그의 역할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그가 대선에 도전하는 등 현실 정치 참여 여부를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그가 야권의 대권후보 및 정권 창출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정

치권에선 야권이 대선 전 '새로운 보수'를 모토로 하는 제3세대 통합을 현실화시켜야 정권 탈환의 길을 열어가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출발점은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로 시작될 것이며 여기서 성공한다면 차기 대권을 목표로 하는 야권 통합의 흐름은 거세질 것이며 대선 판도는 요동칠 전망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유력...친문의 선택에 달렸다

민주당 당 대표 경선도

광주·전남 무더기 입당 원서

사실상 대권·당권 경쟁 시작

당 대표 주자들 움직임 분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개월 뒤인 2021년 3월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는 민주당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대선(2022년 3월9일) 1년 전 대권에 도전하는 당 대표는 직에서 사퇴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대권주자 격들이 본격화하면 자연스럽게 당 대표 경선주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 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신규 당원이 몰리고, 전국적으로 무더기 입당 원서가 접수되면서 사실상 '대권'과 '당권' 경선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송영길·우원식·홍

영표 의원 등이 당 대표 주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월 당대표 선거 때 도전하려 했지만 이 대표의 대세론이 굳어지자 출마를 포기했다. 고희이 고향인 송영길 의원은 5선 국회의원으로 21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다. 호남 출신이면서 인천시장을 역임, 인천이 주된 정치 무대이며 지난 2018년 당대표에 도전해 이 해한 전 대표와 경쟁하기도 했다. 우원식 의원은 86세대 운동권 출신 의원들과 민주당화국민연대(민평연)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윤 총장과 법원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으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 친문 모임인 '민주당 4.0 연구원'에 몸담고 있는 홍영표 의원은 당내 주류인 친문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의원이다.

이 대표의 사퇴 이후 내년 5월까지에는 당 대표 경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원 모집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민주당 광주시당에는 매일 30~50명의 신규 권리당원이 접수되고 있고, 전남지역에서도 차기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한 권리당원 모집이 활발하다. 실제,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성탄절 연휴 동안 집계된 전국 신규 당원 가입자 수는 2만1000여명에 달한다. 이는 '대권-당권-지방선거' 등이 겹치면서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를 시작으로 2022년 대선,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주요 선거 국면에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당원 가입이 한 해적이다. 민주당 당규 제5조는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대표 경선의 관건은 '친문의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최근 당원 가입은 윤석열 파문 등으로 인해 정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흠뻑 젖은 친문 성향의 당원 가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면서 "무더기 당원 가입 등을 통해 친문 결집이 시작됐고, 당 대표 경선에서도 '친문의 선택'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도립대학교총장 초빙 공고

### 1. 자격요건

- 총장임기 종료일 전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한 정년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 (1960. 3. 1. 이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전문대학 이상에서 총·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교수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장·차관, 2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위와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 2. 심사방법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시험(대학운영계획 정년별표 포함)에 의한

### 3. 제출서류

- 가. 지원서, 이력서 각 1부(본 대학소정양식-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나. 총장인용후보자 사진 질문서(본 대학소정양식-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다. 경력·학력증명서(지원서에 기재한 전 경력) 각 1부
- 라. 대학운영계획(A4 10장내외, 14포인트로 작성)
- 마. 연구실적물 등(전자파일 및 별책본 1부)
  - ※ 2007년 2월 이후 SCI, 등재지 이상 논문은 논문발행기관의 연구윤리 검증사실확인서 첨부 제출
- 바. 명함판 사진 2매
- 사. 주민등록등본 1통
  -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물(공증)을 첨부하여 제출

### 4. 접수기간 2021. 1. 13.(수) ~ 2021. 1. 15.(금) 17:00까지 / 3일간(사전접수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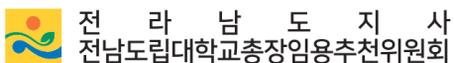
※ 면접 : 2021. 2. 4.(목) 예정 - 시간·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

### 5. 접수장소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으로 152 전남도립대학교 교무기획처

### 6.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립대학교 교무기획처(061-380-8420/8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누리집(홈페이지) 안내 : 전남도립대학교(www.dorip.ac.kr), 전라남도(www.jeonnam.go.kr)
- 라. 면접시험 1:2순위자의 연구실적물을 우리 대학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의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추천위원회 검증 결과 연구윤리위반으로 판명된 경우 결격 처리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지원자에 있습니다.

2020. 12. 31.



##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